

5월 정신 되새긴 광산구 공직자들

5·18묘지 참배...윤상원 열사 생가서 추모식

18일 광산문예회관서 한·일 국제교류음악회

광주시 광산구 공직자들이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최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임곡동 소재 윤상원 열사 생가에서 추모식을 가졌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구 공직자들은 국립묘지 참배에 이어 5·18 구묘지를 찾아 올해 30주기를 맞은 이철규 열사를 기렸다. 이어 윤상원 열사 생가로 이동해 추모식을 열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헌화했다.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자로서 사명을 갖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주주의를 이어나가는 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이외에도 광산구는 오는 18일 지혜학교에서 출발해 윤상원 열사 생가까지 걸으며 열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윤상원 열사를 만나러 가는 5·18 광산길 도보순례’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광산구는 지난 14일엔 송정

역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전시 및 주먹밥 만들기 주먹밥 나눠주기 체험과 문화마당 민중가요함께 부르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특히 광산구는 오는 18일 광산문예회관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정의로운 항쟁과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오월국제교류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광산구립합창단(지휘 정요원), 일본 ‘일어사라! 합창단’(대표 시미즈 노리코), 푸른솔합창단(지휘 정유하), 광주흥사단 기리기합창단(지휘 정태안), 인천시민합창단 ‘평화바람’(지휘 최경숙)이 무대에 오른다. 이날 공연 1부는 광산구립합창단의 ‘상록수’, ‘홀로아리랑’을 시작으로 5개

합창단의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 2부는 분단된 나라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그림책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을 각 합창단원들의 노래와 낭독으로 특별하게 꾸민다. 이어 모든 출연자들이 무대에 올라 ‘인간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공연을 마무리한다. 공연은 관람 뒤 원하는 만큼 관람료를 지불하는 ‘감동후불제’로 진행하고 이렇게 쌓인 모금액은 문화소의계증을 위해 쓰인다. 초등생 이상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 참가 신청은 광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받고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8883)에서 한다. /광산=고훈석 기자



광주시 광산구가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공직자들이 지난 14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모습. 오른쪽은 같은 날 5·18구속부상자회 광산구지회, 광산구자원봉사센터가 송정역에서 ‘5월애(애) 주먹밥 나누기’ 행사 장면.



광주시 광산구가 아파트 입주자·임차인 대표, 마을활동가,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15일부터 ‘광산구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양성교육’ 2기 기본과정을 시작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단체 모집

광주시 광산구가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단체를 공개모집한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선운지구 등 신도심에 맞벌이 가구 유입이 늘어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광산구는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선운후면시아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를 위탁 운영할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다. 위탁 운영단체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을 거쳐 고득점을 얻은 곳이 선정된다. 최종 선정단체는 올해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센터를 위탁 운영한다.모집 기간은 오는 22~24일이다. /광산=고훈석 기자

“행정복지센터 권한 이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공병철 구의원, 마을활동가 발굴·운영비 지원 등 강조

광주시 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이 최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다온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 “행정복지센터의 권한을 주민자치회로 이관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게 된 의미를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정한 풀뿌리자치 정착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환 광주시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정보연 단장(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 김재철 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의 발제에 이어

김광란 의원(광주시의회), 공병철 의원(광산구의회), 진귀수 사무국장(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주경미 센터장(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배철진 정책위원장(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병철 의원은 “주민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주민자치”라며 “행정복지센터 업무 중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면 효율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주민자치회로 이관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 의원은 “광산구는 21개 동 중 5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형 주민자치회의 선도 모델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마을활동가 발굴과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행정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 의원은 광산구의회 제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성질문을 통해 광산구의 21개 동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광산구에 요구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산=고훈석 기자

區, 평동산단 19개 업체 투자 애로 해소

산자부 ‘국유지 산업용지 분할 가능’ 유권해석 이끌어

광주시 광산구가 국유재산인 산업용지의 분할이 어려워 자금과 투자를 유치할 수 없었던 평동산단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했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평동산단 19개 입주업체에 ‘국유지인 산업용지의 분할이 가능하다’고 최근 안내했다. 이 업체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공장·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해 금융권 대출은 물론, 공장 증축 등도 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5월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이 기업들은 5~20년 동안 매각대금 분할 납부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산업용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2가 사실상 국유지인 산업용지의 필지 분할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법령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매각대금 납부 완료 시까지 자신들이 매입·이용 중인 산업용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광산구는 기업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국유지 관리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에 기업들의 애로와 함께 국유 산업용지의 분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달 초 ‘분할 가능하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나아가 유권해석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기업들의 산업용지 분할 신청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광산구는 법제처의 관련 유권해석도 이끌어내 이들 기업이 공장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바 있다. /광산=고훈석 기자

“갈등 없는 아파트 우리가 만들어요”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양성교육’ 2기 시작

광주시 광산구가 아파트 입주자·임차인 대표, 마을활동가,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15일부터 ‘광산구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양성교육’ 2기 기본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층간소음·주차·흡연 등 아파트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자율협약만 마련과 이웃갈등 조정위원회 구성 등으로 주민 스스로 예방·해결하는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과 심화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자격도 부여한다. 이번 기본과정 교육은 이날부터 매주 수·금요일 오후에 총 6회로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진행된다. 전체 교육의 기획·진행은 갈등관리 전문가인 ‘갈등해결 & 평화센터’ 박수선 소

장이 기획과 진행을 맡았다. 광산구는 지난해 기본·심화과정 교육으로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1기를 배출했다. 올해는 이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 등을 마련해 조정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실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갈등 없는 우리아파트 주민협약안’을 만들기 위해 회의를 열면 이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도 지원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주민회의의 지원으로 더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 갈등을 스스로 조정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아파트공동체팀(062-960-8143)에서 한다. /광산=고훈석 기자

사물인터넷 활용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광주시 광산구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원스톱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2019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7천만원을 확보했다. 행안부의 이번 공모는 주민 참여·기여를 기본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발굴·해결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광역·기초단체 10곳이 최종 선정됐다. 광산구의 사업은 사물인터넷이 장애

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와 장애인표지를 인식하고 이를 공공기관 자료와 대조한 다음 위반 차량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광산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많은 지역에 이시스템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단속 이전에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산=고훈석 기자

제일오피스텔, 급매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23-2번지 (구, 수기동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억400만원 급매 - 7500만원(일시불)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조정가)

문의. 010-6834-7400